

에이치브이엠 (295310)

우주로 도약, 방산도 함께

글로벌 최대 우주기업의 핵심 밸류체인

에이치브이엠은 글로벌 최대 로켓 개발사에 첨단금속을 공급하는 우주 밸류체인 업체이다. 동사의 우주 사업 매출 성장 요인은 고객사의 로켓 발사 횟수와 엔진 개수 증가로 인한 첨단금속 수요 확장에 있다. 첨단금속은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극저온 연료 계통과 초고온 연소 계통 부품에 적용된다. 현재 고객사의 위성 발사용 로켓은 매달 약 12번씩 발사 중이다. 엔진 개수도 기존 대비 4배 늘어남에 따라, 첨단금속 수요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동사의 우주 사업부문 매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51억원 → 2024년 130억원 → 2025년 3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인 우주·방산 수요에 선제적 증설로 대응

동사는 첨단금속 CAPA를 7.5배 확장하고 있다. 첨단금속 생산능력은 '24년 5,420톤에서 '25년 22,000톤, '26년 40,650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매출 CAPA는 1차 증설로 1,500억원, 2차 증설로 3,000억원이 확보된다. 첨단금속은 특수금속에 비해 ASP가 높고 이익률도 2배에 달해 이번 증설이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 증설은 고객사의 수주에 기반한 것이며 매출처는 우주 외에도 항공방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사는 고객사 SCOPE를 통해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에 첨단금속을 공급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SCOPE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터키 등에도 방산 부품을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첨단금속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영업이익의 2.3배 증가

2024년 매출액은 504억원(YoY +21.6%), 영업이익은 45억원(YoY +20.7%)으로 전망한다. 1차 벤더의 주문 지연으로 약 70억원의 매출이 내년으로 이연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매출액은 804억원(YoY +59.5%), 영업이익 103억원(YoY +128.9%, OPM 12.8%)이 예상된다. 2025년 4월부터 첨단금속 CAPA가 4배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성장의 업사이드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355	415	504	804
영업이익	12	37	45	103
지배순이익	-4	-61	26	76
PER	-	-	61.2	23.5
PBR	-	-	5.2	4.3
EV/EBITDA	-	-	25.7	13.9
ROE	-3.1	-32.7	8.2	20.1



손현정 스몰캡
hyunjeong.son@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현재주가 (10/24) 15,01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786억원

총발행주식수 11,901,931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49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008,083주

52주 고/저 20,200원 / 10,910원

외인지분율 2.75%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문승호 외 4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5.2) 35.0 0.0

상대 (1.0) 49.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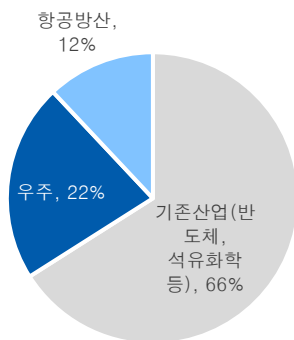
절대 (달러환산) (8.3) 35.3 0.0

I. 기업개요

에이치브이엠은 글로벌 최대 우주 발사체 기업의 밸류체인으로, 첨단금속 및 특수금속 제조 사업을 영위한다. 2003년 4월 설립된 동사는 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서 시작해 우주·항공·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글로벌 최대 로켓 개발 업체에 소수 글로벌 기업만 공급하는 로켓 엔진용 첨단금속을 공급했다.** 또한 이스라엘 방산업체 SCOPE와의 계약을 통해 방산 관련 소재도 공급 중이다. 이처럼 우주 및 항공방산 해외 고객사 확대로 수출 비중은 2020년 5% 미만에서 2023년 31%로 늘어났으며, 수출금액의 3년간 CAGR은 112% 급증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사업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등 기존산업 66%, 우주 22%, 항공방산 12%**이다.

동사는 2012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체에 첨단금속을 공급하며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확보해왔다. 2022년부터는 미국 A사의 밸류체인으로 편입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사의 핵심기술은 고정정 진공용해, 합금화 공정, 금속 특정 제어로 고내구성 금속을 요구하는 우주 및 항공방산 산업에서 필수적이다. **과거 글로벌 소수 기업이 독점하던 첨단금속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핵심 경쟁력은 가성비와 짧은 리드타임이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30~40% 저렴한 가격과 6개월 내 짧은 리드 타임(경쟁사 2년)으로 Top Tier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에이치브이엠 사업부문 매출 비중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에이치브이엠 주요 고객사 현황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투자 포인트

1.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강력한 전방업체

1-1. 로켓 발사와 엔진 확대에 급성장하는 첨단 금속 수요

동사의 우주 사업 매출 성장 요인은 미국 고객사 A의 로켓 발사 횟수와 엔진 개수 증가로 인한 첨단금속 수요 확장에 있다. 첨단금속 제품은 우주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극저온 연료 계통과 초고온 연소 계통 부품에 적용된다.


A사는 2015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성공한 이후 위성 발사용 로켓부터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까지 발전하면서 발사 횟수가 증가했다. 위성 발사용 로켓 발사는 2021년 30번 → 2022년 60번 → 2023년 96번 → 2024년 144번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약 12번의 발사, 즉 2.5일마다 한 번씩 발사 중인 셈이다. 지난 10월 13일, 우주선 및 로켓 시스템의 5번째 테스트 비행도 성공했으며, 로봇 팔을 이용해 엔진을 회수함으로써 완전 재사용 로켓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엔진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위성 발사용 로켓은 10개(1단 9개+2단 1개) → 28개(1단 27개+2단 1개)로 늘어났다.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의 엔진은 현재 39개(1단 33개+2단 6개)에서 2025년부터 41개(1단 35개+2단 6개) → 44개(1단 35개 +2단 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엔진 개수가 기존 대비 4배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첨단 금속 수요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세대 발사체의 엔진은 극저온 메탄 연료를 사용하고 고온·고압 환경을 견뎌야 하므로 기존보다 극저온 내성 소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여기에 질량도 늘어난다. 기존 위성 발사용 로켓 엔진은 1톤 정도의 질량을 가지며 10개~28개가 사용되었으나, 차세대 엔진은 2톤으로 두 배 무겁고 39~44개가 사용되어 총 질량이 최대 8배 늘어난다. 이에 동사의 첨단 금속 공급도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동사의 우주 사업 매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0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51억원 → 2024년 130억원 → 2025년 3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치브이엠 로켓 발사체 소재



소재 특징점

석출물 제어 기술 개발 통해
미세조직이 균일화된 소재 제품 확보

↓

우주 분야 첨단금속 소재 필수 특성 구현

극저온 연료계통
(저온 취성 특성)

초고온 연소계통
(내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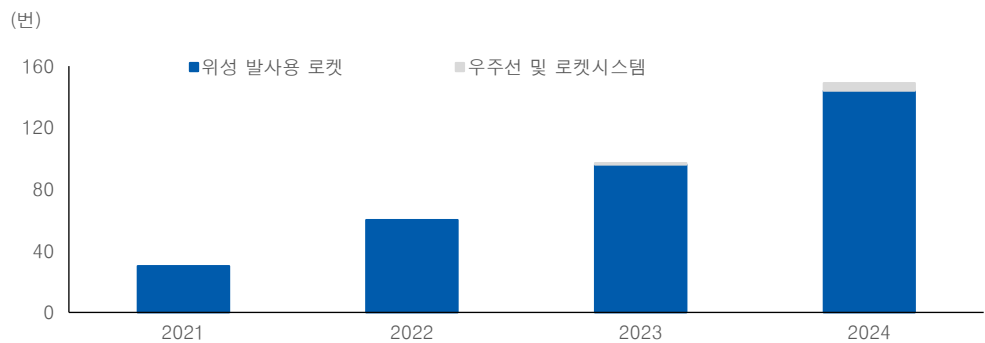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 사 로켓 발사체 엔진 개수 및 질량 변화

로켓 종류	엔진 종류	1단 엔진 개수	2단 엔진 개수	총 엔진 개수	총 질량 (톤)
재사용 로켓	A 엔진	9	1	10	10
차세대 재사용 로켓	A 엔진	27	1	28	28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	B 엔진	33	6	39	78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	B 엔진	35	6	41	82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	B 엔진	35	9	44	88

자료: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 사 연도별 로켓 발사 횟수



자료: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2. 로켓 발사로 가까워지는 화성

우주 산업에서 발사체 시장은 소수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 특히 동사의 주력 고객사 A는 현재 전 세계 궤도 발사체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사용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성과다. A 사는 위성 발사용 로켓 발사 비용을 초기 6천만 달러에서 재사용 부스터 도입 후 3천만 달러 이하로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발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7천 대 이상의 위성이 이미 발사된 상태이며, 총 4만 2천 대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A 사는 5번째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 발사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완전 재사용 로켓 기술을 입증했다. **차세대 로켓은 발사 비용을 2백만 달러로 15배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로 인해 발사 빈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사의 로켓 발사는 궁극적으로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우주 산업의 혁신과 성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이다. **2026년 첫 무인 우주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에는 유인 임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사 일정은 지구와 화성 간 26개월의 회합 주기를 고려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워질 때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격적인 화성 이주는 **2030년 이후 1,000대의 우주선을 발사해 실현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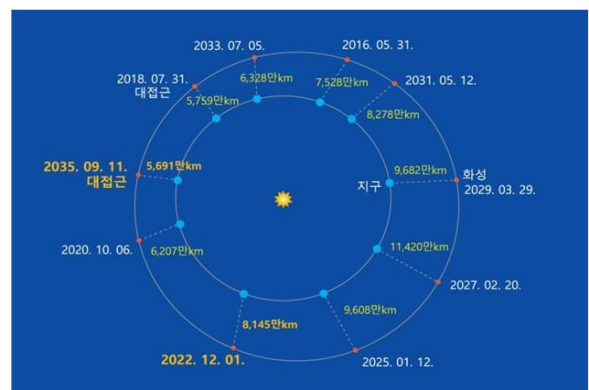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 장기적인 인류의 꿈을 반영하고 있다. 성공적인 임무 수행 시 동사는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우주산업 내 글로벌 파트너십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A 사 화성 이주 프로젝트

연도	주요 내용
2026	무인 우주선 및 로켓시스템 화성 발사
2028	첫 유인 화성 탐사
2031~2032	1,000대 우주선을 이용한 화성 이주 시작

자료: 업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화성과 지구의 공전 궤도와 회합주기



자료: 총주고구려천문과학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선제적인 증설로 CAPA 7.5배 증가

2-1. 첨단금속 매출 증가로 수익성 확대

동사는 우주·항공·방위 산업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금속 CAPA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첨단금속 생산능력은 2024년 5,420톤에서 2025년 4월 22,000톤, 2026년 40,650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상장 공모 자금으로 2공장을 신설한 데 이어, 2024년 7월과 9월 추가 공사를 통해 증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1차 증설은 2025년 2월에 완료되며, 4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증설은 2025년 9월에 완료되어, 11월부터 추가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규모 증설은 상장 당시 목표였던 12,700톤의 증설 계획에서 추가 확장된 것이다. 이는 전방 고객사의 매출 예상치에 기반한 것이며, 매출처는 우주 외에도 항공, 방산, FMM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증설을 통해 첨단금속 매출기준 CAPA는 2024년 500억원 → 2025년 1,500억원 → 2026년 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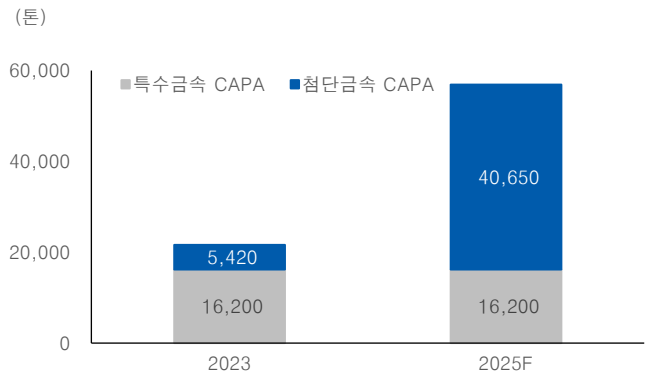
첨단금속은 특수금속에 비해 ASP가 높고 2배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CAPA 확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매출 비중이 40%대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60~70%로 확대되어 동사의 수익성을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치브이엠 증설 일정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에이치브이엠 첨단금속 CAPA 7.5배 증가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2. 증설로 방산 수요도 대응

동사는 고객사 SCOPE 를 통해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에 첨단 금속을 공급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275억 달러로, 이는 이스라엘 GDP 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보다 국방비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배 이상 많다.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등 잦은 지역적 분쟁으로 방산 지출 급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갈등은 방위 산업에서 첨단 금속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동사의 고객사 SCOPE 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도 항공 및 방산 부품을** 제공하며 미국, 유럽, 중국 등지로도 사업을 확장 중이다. 따라서 동사의 **선제적인 첨단 금속 CAPA 증설은 항공방위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상위 국가

국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	국방비 지출 (USD Billion)
우크라이나	37.0%	64.8
사우디아라비아	8.4%	75.0
이스라엘	5.3%	27.5
러시아	4.1%	86.4
미국	3.5%	877
한국	2.7%	50.0
인도	2.4%	81.4
영국	2.2%	68.0
프랑스	2.1%	63.9
호주	2.1%	34.2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3,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에이치비엠 방산 주요 고객 현황



자료: 에이치비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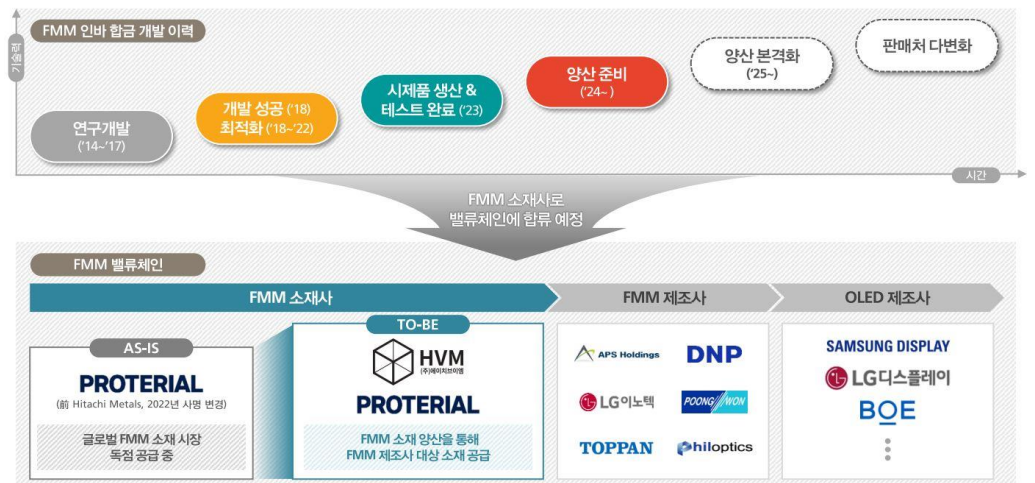
2-3. 증설로 FMM 신사업 가속화

동사는 인바 합금을 활용한 FMM(파인 메탈 마스크) 소재 신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우주 산업 외에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FMM 은 OLED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에 필수적인 정밀 부품으로, 열팽창 계수가 낮은 고정정 인바 합금을 사용해 제작된다. 2023년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2024년 샘플 공급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FMM 완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소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동사는 국내외 FMM 제조사 3~4곳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치브이엠 FMM 매출 본격화 전략



자료: 에이치브이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실적

동사의 2024년 매출액은 504억원(YoY +21.6%), 영업이익은 45억원(YoY +20.7%, OPM 8.9%)으로 전망한다. 우주 사업부문에서 1차 벤더의 주문 지연으로 인해 약 70억원의 매출이 2025년으로 이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2025년에는 기존 계약 물량에 더해 추가적인 매출 기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매출액은 804억원(YoY +59.5%), 영업이익 103억원(YoY +128.9%, OPM 12.8%)으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고객사의 첨단고속 수요 증가를 반영할 전망이다. 2025년 4월부터 첨단고속 CAPA가 4배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성장의 업사이드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에이치비엠 실적 테이블

(단위: 억원)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55	415	504	804
YoY (%)		16.7%	16.8%	21.6%	59.5%
	우주	10	51	130	390
	항공방위	0	57	87	94
	기존산업(반도체, 석유화학 등)	344	307	287	310
	디스플레이	-	-	-	10
영업이익		12	37	45	103
영업이익률 (%)		3.4%	9.0%	8.9%	12.8%
YoY (%)		-64.1%	211.5%	20.7%	128.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에이치브이엠 (295310) 추정재무제표 (K-IFRS)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304	355	415	504	804
매출원가	241	301	334	382	608
매출충이익	63	54	81	122	196
판매비	30	42	43	77	93
영업이익	33	12	37	45	103
EBITDA	50	29	61	80	152
영업외손익	-8	-18	-100	-14	-13
외환관련손익	0	-1	0	2	2
이자손익	-8	-17	-19	-17	-16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0	0	-81	1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	-6	-62	31	90
법인세비용	2	-2	-2	4	14
계속사업순이익	23	-4	-61	26	76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3	-4	-61	26	76
지배지분순이익	23	-4	-61	26	76
포괄순이익	0	-3	-62	25	74
지배지분포괄이익	0	-3	-62	25	74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2025F
영업활동 현금흐름	9	-15	25	77	-16
당기순이익	23	-4	-61	26	76
감가상각비	17	17	24	35	49
외환손익	0	1	1	-2	-2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35	-39	-24	-68	-224
기타현금흐름	3	9	85	85	85
투자활동 현금흐름	-39	-50	-58	-57	-56
투자자산	0	0	0	0	-1
유형자산 증가 (CAPEX)	-39	-51	-55	-55	-54
유형자산 감소	1	2	0	0	0
기타현금흐름	-1	-1	-2	-1	-1
재무활동 현금흐름	59	89	13	41	14
단기차입금	37	190	-172	55	1
사채 및 장기차입금	-8	72	-18	-40	0
자본	30	-110	300	12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0	-64	-98	13	13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1	-16	0
현금의 증감	28	24	-20	45	-58
기초 현금	21	49	73	53	98
기말 현금	49	73	53	98	40
NOPLAT	33	12	37	45	103
FCF	-30	-66	-31	22	-70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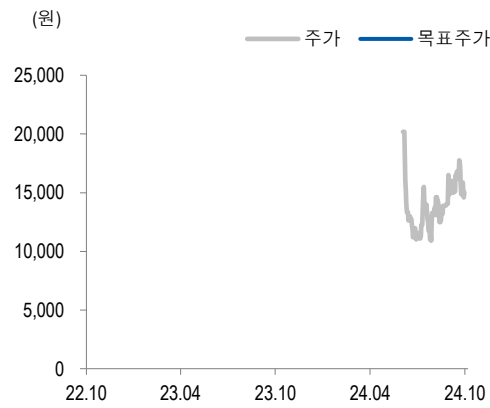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증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2025F
유동자산	295	368	475	607	852
현금및현금성자산	49	73	53	98	3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8	65	69	80	128
재고자산	175	224	343	417	666
비유동자산	247	322	377	398	404
유형자산	244	314	362	382	387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 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2	2	2	2	3
자산총계	542	691	852	1,005	1,256
유동부채	243	456	389	543	70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3	54	124	151	240
단기차입금	172	197	189	244	244
유동성장기부채	25	22	26	26	26
비유동부채	94	168	159	121	136
장기차입금	76	133	114	92	92
사채	8	17	18	0	0
부채총계	337	624	548	664	841
지배지분	205	66	304	341	415
자본금	24	14	47	60	60
자본잉여금	103	2	269	269	269
이익잉여금	72	50	-12	14	90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205	66	304	341	415
순차입금	231	469	300	271	330
총차입금	280	543	354	369	371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2025F
EPS	403	-74	-895	245	639
BPS	2,274	736	3,216	2,863	3,488
EBITDAPS	584	326	667	746	1,278
SPS	3,534	3,941	4,523	4,698	6,755
DPS	0	0	0	0	0
PER	-	-	-	61.2	23.5
PBR	-	-	-	5.2	4.3
EV/EBITDA	-	-	-	25.7	13.9
PSR	-	-	-	3.2	2.2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증가율 (%)	22.5	16.7	16.8	21.6	59.5
영업이익 증가율 (%)	751.1	-64.1	211.5	20.7	128.9
지배순이익 증가율 (%)	51.6	적전	적지	흑전	188.8
매출총이익률 (%)	20.7	15.3	19.4	24.2	24.4
영업이익률 (%)	11.0	3.4	9.0	8.9	12.8
지배순이익률 (%)	7.6	-1.2	-14.6	5.2	9.5
EBITDA 마진 (%)	16.5	8.3	14.8	15.9	18.9
ROIC	7.3	1.7	6.3	6.3	12.5
ROA	4.6	-0.7	-7.9	2.8	6.7
ROE	13.0	-3.1	-32.7	8.2	20.1
부채비율 (%)	164.7	942.3	180.4	194.9	202.6
순차입금/자기자본 (%)	112.8	708.3	98.9	79.6	79.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4.2	0.7	1.9	2.6	6.4

에이치비이엠 (2953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10-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7.9
Hold(중립)	12.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10-25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손현정**)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